

안전을 적용한 학교 교육 시설의 계획에 관한 연구

- Study about a plan of the school education
facilities which applied safety -

김 종 복 *
Kim Jong Bok

Abstract

A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education facilities must be considered by a change of an education facilities equipment acid education system and aromatic character of an educational policy with a means to support to efficiently proceed education by study about a plan of the school education facilities which considered safety. That is, education facilities must become maintenance on design construction according to education action character and goal. This is not for a function of education to be decided according to education facilities, and education facilities must be decided so that adjustment can do an education function. The student center, a student are convenient, and an actor must do a plan of education facilities with an usable physical space contrariety, future directivity. As for the plan of school education facilities, facilities must be designed on functionality, an economy, flexibility, aesthetic appreciation anger, a foundation of stability for this so that objective of education realization is easy.

Keyword : Education facilities, Safety, Physical space, Flexibility

1. 서 론

학교 교육 시설은 사회 문화의 발전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학교 교육 시설은 단순히 학생을 수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교육의 매체요 도구이면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환경이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 시설은 교육의 도구나 수

* 노원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홍익대학교 강사

단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내용을 좌우하며, 교육 내용 그 자체로서 교육시설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다[7].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개혁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조직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면 교육 시설은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교육 시설은 학교의 평생 기능 확대, 농어촌의 사회 교육 강화,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확립,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 확립, 교육 여건의 개선, 교수-학습에 필요한 학교 기본 시설과 교육용 교구 확충, 노후 건물의 현대화 등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학교 교육 시설의 역할은 교육과정의 기본 요소로 기능하여야 한다. 학교 건물은 학생과 교직원을 수용하는 기능 이상의 역할, 즉 교육 도구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시설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8].

교육 시설을 교육적 도구로서 본다면 도구로서의 다양한 측면과 교수·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시설은 교육 프로그램을 촉진시키고 자극시키며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교육적 도구로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시설은 너무도 미약하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교육 시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것 없이, 교육의 효율성과 질적인 향상을 외면하고 현실의 여러 조건에 맞추는 최소한의 시설에 불과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설비는 사용자인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학생 수, 학생의 신체 발달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공급된 것이다. 학급당 인원수가 62명이던 1980년대와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많이 달라진 2003년에는 학급당 인원수 35명에 적절한 교육 시설의 여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3].

또한, 현재의 교육 시설은 교육 발전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실한 여건에 있다. 초·중등 교실은 모든 교실이 천편일률적으로 20평 규모의 장방형 형태로 시설되어 있으며 교사 중심으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어렵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6].

새로운 교육 시설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 시설 계획은 교육 시설의 기능성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교육 시설의 계획 단계는 교육 목표, 교육 요구, 교육 자료 및 설비,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개념, 교사의 학습 계획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교육 시설은 학생의 신체적, 안정적, 정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어 있다. 현대 교육 시설은 학습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습 환경을 공간적, 음향적, 기온적, 시각적, 심미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학습 운영 방식으로 수준별 수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발맞추어 비교적 많은 중등학교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의 지정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의 현황을 보면 이들 학교들은 기존 교사에서 학습 공간의 부족, 학생들의 이동시의 문제점, 한정된 교실 크기나 수로 인한 학습 진단 편성시의 한계 등의 여러 문제점을 수반한 채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형편이며, 본격적인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면 새로운 유형의 교사의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중등학교의 학교 건축을 보면 초등학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보통 교실(9.0m×7.5m)과 특별 교실의 획일적인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공간의 규모가 학습 집단의 규모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각 특별 교실도 보다 전문적인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나 설비면 까지도 향상을 가져와야 함은 물론, 교사 전체의 공간 구성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 교육 시설 설비 기준령의 변천 과정

교육 시설 설비 기준령은 1969년 12월 4일 대통령령 4398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동 령은 ·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곧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시설 설비를 제외한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기관, 그리고 이에 준하는 학교들의 시설 설비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법규가 바로 교육 시설 설비 기준령인 것이다. 이 기준령에는 교지, 체육장, 교사(보통 교실, 특별 교실, 시청각 교실, 도서실, 상담실, 관리실, 보건 위생 및 편의 시설), 교구, 급수 시설, 소방 시설, 및 권장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1].

제 1차 개정은 1969년 12월 24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의 이유는 법령의 한글화 정책에 따라 제정 당시 한자로 씌어졌던 낱말을 모두 한글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1차 개정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정이라기보다는 법령 한글화 정비 라고 볼 수 있다.

제 2차 개정은 1970년 11월 25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의 이유는 제정 당시 규정한 시설 설비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대한 조치 규정이 1년으로 되어 있었던 바 그 규정 초과 시까지 시설 설비 미달을 보충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조치를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서였다. 곧 2차 개정은 제17조에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 사항을 교육의 시설 설비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 학급수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어느 정도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 3차 개정은 1973년 9월 14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의 이유는 교육 시설 설비 기준령에 제시되어 있는 당시 기준을 교과과정의 운영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시설 설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각 기준이 최대 기준인 것처럼 해석되어 마치 기준령에 제시된 해당 규정 이상의 시설을 확보할 수 없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요시간의 양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이유를 근간으로 개정된 주요 골자는 체육장 기준 면적이 조정되어 당시 초등학교 4,800m² 이상이던 면적 기준이 7,800m² 이상으로 확대 규정되고, 중·고등학교는 9,600m²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3차 개정은 이와 같은 체육장 기준 면적의 개정 외에도 과학 기술 교육 강화를 위하여 과학 교육을 위한 특별 교실 및 그 준비실을 구체적으로 현재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4차 개정은 1975년 10월 21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의 이유는 유치원의 시설기준을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완화한다는 데 있었다.

제 5차 개정은 1976년 2월 12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의 이유는 시 및 도서 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교사 대지 및 실습지, 각종 학교와 기타 학교의 체육장 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제 6차 개정은 1976년 6월 7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개정은 각종 학교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체육장 시설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제13조 제4항이 신설되었으며, 각종 학교에는 보통교실, 관리실 및 보건위생에 관한 시설을 두되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시설을 다른 시설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13조 제1항을 개정하였다.

제7차 개정은 1979년 8월 25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개정은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 제정으로 폐교될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관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8차 개정은 1980년 9월 26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 이유는 도시지구 학교 용지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장에 대한 각급 학교 기준면적을 축소 조정하여 그 학교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었으며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9차 개정은 1981년 1월 27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의 이유는 유치원 확보난을 해소 하여 취학전 교육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제10차 개정은 1982년 8월 5일 단행되었는데, 제8차 개정과 제9차 개정 때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졌다. 곧 10차 개정 이유는 학교설립 용지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 중등학교의 체육장, 교실면적과 그 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초 중등학교의 경우 체육장 기준 면적을 평균 80%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의 보통 교실 최소 기준 면적을 초 중등학교 보통교실과 같은 66m² 이상이던 것을 50m²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제11차 개정은 1984년 8월 2일에 교육부령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체육장, 교실 등에 갖추어야 하는 설비 등의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내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체육장의 체육 시설 기준, 교실, 준비실 또는 도서실의 설비 종목과 수량, 학과 또는 교과별 교구의 종목과 기준, 그리고 각종 학교 등이 이 기준령 이외에 별도로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등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제12차 개정은 1988년 9월 24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의 이유는 특수 교육의 대상자인 시청각 장애자 등이 학교에 등교하기 편리한 시설을 두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결과 종전까지는 학생들의 통학이나 취학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특수학교에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 버스를 운영토록 하여 특수학교 대상자들도 좀더 편리하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13차 개정은 1992년 2월 1일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교육 시설 기준에 대한 개정은 없이 설비 등의 내부 시설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4차 개정은 1992년 10월 1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 내용은 교육 시설 기준을 학생 규모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과학 교실의 기준을 강화하고, 컴퓨터 교실 등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음의 개정은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1997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5483호)’에 제시된 학교 시설·설비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대한 설립 인가권자는 학교 급별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므로 인가권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국가 수준의 학교 설립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7년 법령의 체계 및 내용의 대폭적인 개편을 위하여 기존의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을 폐지하고,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시설·설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2].

3. 교육 체제의 변화와 안전을 고려한 공간 재배치

학교의 물리적 시설은 교육 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 시설의 건축 및 설치의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 체제의 변화에는 거시적으로 국가 교육 정책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변화, 인구 변화, 교육 제도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이러한 거시적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체제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시설은 교육 활동이 실제로 전개되는 장소로서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물적 조건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5].

3.1 학교 변화와 교육 시설 변화의 방향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이 바뀌면 교수·학습 방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 교육 시설에 대한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장은 산업 시대에 가능하였던 통제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제 수업에 알맞은 시설 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표준 설계 지침서나 표준 설계도에 의하여 전국의 대부분 학교를 획일화 정형화 시켜 놓았다. 긴 복도, 중앙 계단, 전면의 운동장 배치, 채광을 고려하지 않은 일자형 건물, 적색 벽들에 흰색 페인트, 전국 표준인 25평 공간, 전면의 칠판, 후면의 게시판, 획일적인 책걸상 배치 등이 도시나 농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어느 한 곳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학교 체제나 교육 내용이 변화하면 학습 공간이 효율적으로 재구조화 되어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새로운 교육 내용의 도입에 앞서 학습 공간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건물 구조와 공간은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 공간은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외적 요인과 공간적 물리적 요소로서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 공간이나 학교 시설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하느냐 문제는 학습자나 교사에게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2 교육시설 배치의 다양화

급변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식 기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현대화 첨단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시설의 재구조화는 교과 연구와 각종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학년 단위의 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학습 공간이나 물리적 구조를 효율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단위 학교가 중점을 두고 추구하는 교육적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학교 내 다양한 작은 군의 새로운 학교 개념을 도입하는 교실 배치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동 학년별로 교실 군을 만드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조직 중심 모형이나 학년 중심 모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공간에서 수준별 조직 학습이 이루어지고 개별 학생들은 독자적인 학습에 몰두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내의 학년 군이나 교과 군 교실에서 해당 학년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교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지도 기술과 개별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의 확보된 공간에 시청각 교재를 위한 각종 기자재 및 정보화 교재를 설치하여 학생 교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건축되는 학교 시설이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일자형에서 벗어나 장방형이나 직교형, 십자형 등 다양한 배치가 모색되어야 하며 학교의 입지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3.3 열린 학습 공간 구성

학교 건물이 다양화되고, 지역 사회나 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특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학습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나 운영 방식이 구태의연하다면 새로운 학습 환경이나 지식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고정식 학습 운영은 특정 교과목이 요구하는 교과목의 독특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동이 어려운 고가의 학습 자료나 교구를 학습 단위로 설치하거나 구입해야 하는 까닭에 최적의 학습 환경 구성이 느려지며, 팀티칭, 그룹 간 교환수업 등 새로운 학습 방법 도입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전용 교실이나 연구실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매년 신학기가 되면 자료 이동과 교실 재배치로 새로운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습 훈련을 할 시기에 이동으로 학습이 방해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 자체가 학습, 식사, 휴식, 상호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화 공간이자 생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발달 특성상 돌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잦은 이동이 가져오는 안정감의 저해와 통제의 어려움으로 교과 교실형 보다는 특별 교실형의 열린 공간형 학급 운영이 적합하다[4]. 이 때 기존의 학교 시설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교실(전용실), 교과교실(음악, 미술, 자연, 실과 등 실험실습과 노작 활동이 필요한 학습), 특별실(일반교실 + 교과교실 형태로 팀티칭, 그룹학습 가능), 다목적실(급식과 도서실, 발표회 등 다양한 교육 활동 가능)로 구성할 수 있다. 신축하는 경우에는 학습 공간에 대하여 기존 및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활동이나 환경 변화에도 대응 가능한 공간으로서 지식 사회에 필요로 하는 활동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 공간을 지닌 학교를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편복도형에서 벗어나 교실과 열린 공간을 연속적으로 계획하여 대형 및 소형으로 조합할 수 있는 책상 등 여러 가지 교구로 융통성 가변성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활동과 학습 형태에 대응하도록 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 교실형이 바람직하다. 교과 교실형은 중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은 교과 전용의 특별 교실로 구성하는 평면형으로 교과 담당 교사가 교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시간표에 따라 해당 교과 교실로 찾아가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학력차나 능력차에 따른 다양한 수준별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선택 교과제가 가능하다. 교사는 전담 교실의 확보로 과목이 요구하는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교과목에 알맞은 전문적인 시설이나 교구를 설치할 수 있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초등학교의 학년 집단의 개념처럼 교과 교실을 하나의 그룹으로 배치하여 각 교과목의 특성과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고, 습득된 교수 기능을 공유 활용 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교실 수가 적게 되어도 가능하므로 공통 학습 공간이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을 늘릴 수 있어 용적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행사 운영 시 1~2 학급 정도가 예상치 않게 증가할 경우에도 학생 수 증감에 따른 교사와 학급 수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 교실형의 실시는 학급 전용 교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 문제가 되며, 동선이 길 경우 이동 시간과 이동량을 적절히 하기 위한 실 배치 계획이 중요하며, 생활 지도가 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공간은 학생들의 생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곳에는 개인의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설치하고,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 지도의 경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인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 진로 지도, 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3.4 학습 공간 배치의 융통성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다양한 교수 매체의 활용과 가상 공간에서 정보의 검색과 상호 공유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지식의 습득과 창출이 교사-학생의 일원적 관계에서 학습자 상호간, 학습자 매체간 등 다원적 관계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된 학습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수 공학 기자재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활용하기 위한 학습 공간의 확보 등 공간 배치와 사용이 중요하다. 즉 다양화된 학습 매체, 학습 집단 편성의

가변성과 유연성 증대 등은 교실 내부 운영 방식의 융통성과 다목적 변경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책상이나 작업대가 기존의 사각형에서 탈피하여 여러 가지 모형으로 모듈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필요에 따라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어야 한다.

3.5. 학교시설의 개방화와 복합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학습자 모두가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활용하고 저장하는 정보 소양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소양과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의 개방화와 복합화가 필요하다.

시설 개방은 학교 유휴 시설이나 운동장, 방과 후 빈 교실이나 시설들을 지역 사회나 지방 자치 단체에 개방하는 것이다. 학교 시설 설비 공간의 개방으로 문화 활동, 교육 활동,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시설의 복합화는 학교 개방화와는 달리 학교의 신축 증축 개축 시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의 필요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편의나 이용을 고려하여 학교 건물을 복합화 하거나 동일 부지에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해 학교는 지역 사회 중심 학교로 기능적 변화를 가져오고, 학교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기존 학교의 부지와 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재개발할 수 있으며 현대화된 학교의 신축도 가능하다. 학교 시설의 공익용 사용은 평생 학습에 부응하고 교육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에도 기여하게 되며,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에서 지역 주민이 같이 학습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습자와 지역 사회가 유기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4. 학교 교육 시설의 발전 방안

새 시대에 대비하는 학교 교육 시설의 개선은 양적 충분성과 현안 정책 과제에 대비한 시설 정비와 같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인 전망에 대하여 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대비하는 방안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5].

4.1 학교의 기본 여건 변화에의 신속한 대응

각급 학교 교육 시설은 학교 규모, 수업 시간, 교육 내용 등 기본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발전해가야 한다. 학교 규모는 대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에 따라 달라져왔으며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규모화가 전망되고 있다. 교육 시설은 또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 시간과 함께 보충 수업과 같은 비공식적인 학습 활동과 개인 연습과 같은 활동까지도 감안하여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조사가 요청되고 있다. 시설 노후에 대한 유지 보수 체제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 행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4.2 교수 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응

각급 학교 교육 시설은 교수 학습 방식의 발달에 부합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는 교수 학습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의 분화와 함께 다양한 코스가 설치될 것이 전망되고 있고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 움직임과 함께 혁신적인 고등학교 시설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4.3 정보 사회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처

각급 학교 시설은 다가오는 정보 사회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보 사회에서 선두를 차지하여야 한다. 국제화의 가속화와 함께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활용은 학교 교육에서 긴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육 시설은 특히 정보 사회의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구조와 내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4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기능 강화

각급 학교 교육 시설은 학교가 지역사회에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학교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사회의 공공 시설을 학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좀 더 융통성 있는 시설 활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수준에서 종합적인 시설 정책과 제도의 구비가 요구된다. 이 같은 시설 정책과 제도는 시설 계획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시설 계획에서는 학교 교육의 기본여건의 전망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수·학습 및 학교 운영 방식의 전망을 감안하며 학생과 교사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새로운 시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전략적 요인을 고려한 학교 시설 계획의 강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5. 결론

안전을 적용한 학교 교육 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학생 인구의 변화, 학교 제도의 변화, 교수·학습 체제의 변화 및 학교 기능의 변화 등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시설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학교 교육 시설은 학생 중심,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시설 환경은 쾌적하고 비판료적이어야 하며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은 학교의 구성원 모두에게 소속감, 안정감을 주

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 시설 설계는 실험, 경험 학습, 다양한 교수 개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안 구조의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 가정, 미술, 음악 등의 교과 과정을 위한 기술적이고 전문화된 특수 목적의 공간이 설계되고 새로운 수업 공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실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실 공간은 집단 학습을 촉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책걸상 배치가 가능해야 하고 수업 프로그램에 따라 유연성이 있으며 공간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칸막이, 접는 벽 같은 구조를 갖추어 열린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6. 참 고 문 헌

- [1] 고영진, “교육시설 발전 모형 탐색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2] 교육법전편찬위원회, 교육법전, 교학사, 1998.
- [3] 김종복, “중학교 기술실 설비 배치의 최적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4] 류호섭, “중등학교 교과 교실형 교사 도입에 관한 건축 계획적 관찰”, 한국교육 시설학회지, 제5권 2호 통권 14호(1998).
- [5] 안승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학교 체제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6] 신중식, “학교시설의 현실과 현대화”, 새교육, (1987) :30-37.
- [7] 정태범, 교육행정학, 정민사, 1996.
- [8] Castaldi, B,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 Modernization, and Management. Newton, MA: Allyn and Bacon, 1987.

저 자 소 개

김 종 복: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 서울 노원중 교사와 한국 교원대학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홍익대학교 강사, 주요 관심 분야는 초·중 등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시설 정책 및 기술실, 과학실(실험·실습실), 컴퓨터실의 교육 시설 연구와 안전을 적용한 배치 기법 등